생활 속 佛法 실천…'붓다의 딸들' 머리 맞대다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를 주제로 열린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에서 발표된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은 대회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불교 속 젠더에 대한 관념과 비구니 수계 현황, 생활 속 부처님 가르침 등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 중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논문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있기'를 주제로 열린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에서 발표된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은 대회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사진은 황수경 교수의 '현대사회에서 생활 속 수행의 필요성: 대행 선사의 생활선을 중심으로' 발제 모습.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논문발표 세션 1 '한국의 불교여성'에서는 한국비구니 역사에서부터 조계종단 내에서 비구니의 위상, 여성재가불자의 사회적 영향력과 도전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발표가 이어졌다.

황수경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생활 속 수행의 필요성: 대행 선사의 생활선을 중심으로'에서 한국의 비구니 선사로서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에 노력해 온 대행선사(1927~2012)의 생활선에 대한 특성을 살펴봤다.

수행 원리의 중심인 '한마음 주인공'에 대해 설명한 황수경 교수는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자신과 대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근본인 한마음에 믿고 맡김으로써 내면의 에너지와 연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며 "본래 누구나 갖추고 있는 근본의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를 생활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면서 일체를 주인공인 한마음에 맡기면서 생활하면 곧 수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사는 모든 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내면의 마음 에너지를 활용해 자유롭게 진화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한다"면서 "선사의 가르침대로 모든 존재는 자신의 또다른 모습임을 알고 남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된다면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세션 3 '깨달음의 추구: 비구니 수계의 현황'에서는 부탄과 캄보디아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비구니계 부활을 위한 노력이 상세히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베마데끼 스님은 '비구니계 부활을 위한 부탄의 노력'에서 "2014년 부탄에서 열린 국제불교여성대회에서 처음으로 불교 여성 출가자를 위한 사미니 수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여성 출가자들의 구족계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면서 "이후 2022년 열린 최초의 현대 비구니계 수계식은 역사적인 날이자 부탄과 부탄의 여성 출가자, 부탄 비구니 재단뿐만 아니라 불교 역사 전체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구족계를 받은 여성 출가자 중에는 이미 대학원 과정을 마친 저명한 종교학자도 있다. 베마데끼 스님은 "이제 비구니로서 인정받은 이들은 교육자로서 의미 있는 인정과 큰 공헌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승가 규율을 공부하고 계율을 준수하며 그 가르침을 따르다보면 수행은 성숙한다는 점에서 여성출가자들이 이제 비구들만 배울 수 있었던 전통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5개 세션에서 2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6월 24~27일 샤카디타 세계대회 현장
5개 세션, 전문 학자들 27편 논문 발표
황수경 교수 "마음 에너지 활용" 강조
캄보디아 등 비구니계 부활 노력 눈길

말라이 오츠는 '캄보디아 불교사부대중을 완성할 비구니 교단회복을 위한 도전'에서 교육 리더십 박사학위를 받고 캄보디아 비구니승가 추진위원회를 공동 설립하기까지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설명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들의 노력으로 2022년 말레이시아에서 세 명의 캄보디아 여성들이 테라바다 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었다. 말라이 오츠는 "비구와 마찬가지로 비구니 사찰과 소녀들을 위한 불교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밖에도 이번 샤카디타 세계대회에서는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무상성' '순례, 수행,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존재'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속에 적용하기' 등을 주제로 총 2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대회에서 진행된 50여 개의 다양한 워크숍도 불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롭게 참석하며 한국불교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불교문화를 배우고 체험했다.

혜모 스님과 한마음선원 청년회가 준비한 '연등제작과 행사를 통한 마음공부' 워크숍에 참여한 후앙 판 대만 불광산사 신도는 연등을 직접 만들어보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마음선원 청년회는 6월 24일 오후 진행된 워크숍에서 연등제작과 연등행사에 참석하는 이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이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를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마음공부 재료로 삼으라는 대행 선사의 뜻을 알리고 연등회가 불자들의 종교행사일 뿐 아니라 종교,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가 돼 즐기는 축제임을 참가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 것. 혜모 스님은 이날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등을 만들고 연등행렬에 참가하고 있는 한마음선원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베트남에서 온 아옹 스님은 "연등을 제작하는 워크숍 과정을 통해 탐, 진, 치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모두 행복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혜의 등불을 만들어 낸 것이 가슴에 와 닿는다"면서 "특히 불자들이 손을 모아 하나의 연등을 만들어 내는 활동은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탁본의 가치를 체험하면서 불교문화를 알아가는 탁본 워크숍에도 많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송정사 주지 중원 스님은 탁본의 가치를 체험하면서 불교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워크숍을 구성했다. 돌과 금속에 새겨진 글자와 문양을 먹을 이용해 종이에 찍어내는 방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진정 스님이 진행한 '찰나의 명상으로 만든 찰나의 Short' 워크숍은 명상과 함께 결과물을 만드는 '신박한' 아이디어로 즐거움을 줬다. 참가자들은 함께 하고 싶은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도출된 몇가지 제시어를 가지고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명상 도중 떠올랐던 단어나 이미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 이들은 아이디어로 영상을 찍거나 가사를 만들고, 자유롭게 멜로디를 넣으면서 이를 모아 간단한 영상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한복 미니어쳐 만들기, 청소년을 위한 자비명상, 마음챙김 글쓰기, 환경을 생각하며 팻말 만들어 거리 운동, 정념명상과 다도, 단청그리기, 웃음요가 등 사흘간 이어진 다양한 워크숍은 한국불교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불교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샤카디타 이모저모

진관사 사찰음식에 "원더풀"

천년고찰 진관사(주지 법해)에서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하며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참가자들은 진관사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사찰음식을 맛보고 입을 모아 "원더풀"을 외쳤다.

진관사가 마련한 사찰음식은 표고버섯조림, 메밀전, 곤드레나물, 노각무침, 근대된장국 등 10여 개로 구성됐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담긴 것, 수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사찰음식"이라며 이날 선보인 메뉴를 소개하자 천천히 사찰음식을 음미한 참가자들은 "맛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철학과 문화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죽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운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전 회장 텐진 빠모 스님은 "아름답고 청정한 도량에서


진관사에서 사찰음식을 공양한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원더풀"을 외쳤다.

믿을 수 없는 맛의 음식을 대접받아 기쁘다"면서 "샤카디타 참가자들의 표정을 보니 모두 맛있게 사찰음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준비해준 진관사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온 나로우 씨는 "야채에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면서 "양념이 적으면 맛을 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반적으로 요즘 트렌드와도 잘 어울리는 맛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회 숨은 조력자 '자원봉사자들'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불심도 한몫했다.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묵묵히 일손을 돕는 봉사자들의 활약은 불교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매끼 3000인분, 주말에는 5000인분의 공양이 준비됐던 봉은사 만발공양간은 덕환 스님과 선재 스님을 비롯한 수백 명의 전국비구니회 스님, 셰프 12명, 그리고 봉사에 나선 불자들 덕분에 원활히 운영될 수 있었다. 봉사자들은 매 끼니를 위한 재료구매 과정부터 손질, 조리, 배식, 설거지까지 모든 과정에 힘을 보태며 배식에 만전을 기했다.

메인 셰프 정권식 한국중식요리협회 중앙회장은 "외국 참가자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편안한 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음식 제공에 신경 썼다"면서 "손이 많이 가는 메뉴들이었음에도 자원봉사들 덕분에 무리 없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사 기간동안 코엑스 내 차려진 찻자리는 전국비구니회 차문화연구소와 한국명선차인회에서 준비했다.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5일간 끊임없이 녹차와 연차, 오미자냉차 등 한국 전통차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디저트를 맛보게


매끼 3000명이 넘는 참가자의 공양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고 싶은 마음에 꽃 송편과 한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인기를 끌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활약도 빛을 발했다.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행정 담당까지 약 20여 명의 의료진들은 대회 기간 동안 코엑스에 부스를 마련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앰뷸런스 1대도 코엑스 앞에 대기 시켜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의료지원은 타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소화불량과 감기, 두통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고령 참가자가 많은 행사 특성을 고려, 관절과 혈압 등에도 대비했다. 다행히도 대회기간 동안 대형 응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명숙 대외협력홍보팀장은 "개막부터 순례까지 모든 행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썼다"면서 "동대병원 의료진은 앞으로도 다양한 불교행사에서 봉사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02-365-7747

성지순례를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대만 5일
▶불광사-법고산사-자제공덕회-자항사-101타워
▶1,490,000원 부터

베트남+캄보디아 6일
▶인간이 만든 신의 도시 앙코르와트
▶1,490,000원 부터

일본(오사카/나라/교토)
▶백제 불교문화가 남아있는 관서 지역 순례

치앙마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둔 [도이수텝]

인도네시아
▶세계7대 불가사의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사원]

*출발일, 인원수, 항공, 호텔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